



## 빛의 순례 A Gleam Pilgrimage

이 정 훈

건축가 · 조호건축 대표

Jeonghoon Lee

Architect

President, Joho Architecture

월간 에세이 13년 9월호  
Essay Montly Sep. 2013

프랑스 낭시에서 건축 재료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답사를 간 메츠 근교의 낡고 허름한 유리공방은 규사덩어리가 내뿜는 뜨거운 열에너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공방의 장인들은 긴 호흡을 가다듬고 시뻘건 땀들을 분출하며 공기 속에 주문자의 형태를 가득 채우곤 했다. 역설적이게도 유리의 물성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간 그 공방에서 나는 우연찮게 공장 벽을 가득 매운 낯선 외장재의 기이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장이 그러하듯, 그 공방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히 외기를 피할 수 있는 재료로 벽면을 마감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낯선 이방인의 생경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겨울의 매서움과 액화된 유리의 뜨거움이 빚어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무심히 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그 플라스틱 위장재는 다양한 색채 구성으로 공장 외벽 면을 가득 채우면서 유리공방 내부를 신비로운 빛들로 감싸 안고 있었다. 빛은 그 외장재의 표면에서 산화되고 색채를 머금으며 그것을 다시 자신만의 어휘를 통하여 내뿜어졌다. 또한 외부의 플라스틱 표면이 태양 광원의 힘에 의해 자신을 움츠리게 하여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내부의 표면을 그 태양빛을 자신의 몸으로 체화한 후 공간에 흩뿌려버린다.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은 빛에도 양과 질이 있다는 사실이다. 유학 전 매일 마주했던 서울 대도심의 공간에서는 동일한 양과 질을 가진 평준화된 빛만을 보고 살았던 것 같다. 또한 세상의 모든 빛은 그러할 것이라는 선입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빛의 진폭과 공명을 애써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빛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항상 ‘밝다’ ‘어둡다’와 같은 상투적인 어휘를 사용하곤 했지만 그날 느꼈던 빛은 ‘자아롭다’ ‘감미롭다’와 같은 다른 어휘를 떠올릴 만큼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알바알토 (Alvar Aalto)의 걸작 부오크세니스카(Vuoksenniska) 교회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감각적 빛을 연상하게 할 만큼 감동적인 것이었다고 할까.

알바알토가 위대한 건축가인 이유는 모더니즘이라는 차가운 형식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빛의 다양함에 대한 치열한 구현 때문

일 것이다. 또한 그 빛이 주는 아름다움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빛의 공간’이라는 테마 속에서 재해석해 봐야할지 모른다. 특히 고딕건축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역사상 최초로 빛의 양과 질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그것을 구조기술의 진화에 맞춰 생성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 생산물은 공간을 구성하는 내외부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을 너머 한 시대의 역사와 감성을 대변해낸다. 가령 샤갈이 렘스(Reims) 대성당에서 사용했던 스테인드글라스의 푸른색의 색감은 고딕건축의 시간성을 초월하여 시대적 미감과 세련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공방 고유의 빛은 마치 알자스 로렌(Alsace-Lorraine)의 하늘빛을 담아내는 듯 그 장소만의 아우라를 가진 특별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이 있다. 유리는 결코 벽돌이 될 수 없으며 벽돌은 결코 돌이 될 수 없다. 20세기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이 말했듯, 그 사물 자체는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존재한다. 그것은 조물주의 합목적적 의도이거나 자연의 법칙에서 귀결된 하나의 과학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성 자체와는 별개로 우리가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와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며 바로 철학이라 불리는 것의 전제일 것이다. 평범하게 마감된 플라스틱 덩어리가 수백 년 동안 정성 들여 만들어진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깔만큼 아름답다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이라기 보다는 한 사물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의 방법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후 파리 유학시절 동안 세상의 모든 창조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중지(epoque)하고 주체 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에 그 본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채움이 아닌 비움의 과정이었으며, 자아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답변이었다. 니체의 말처럼 진리란 실재하지 않고 오직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미지의 실체란 오직 우리 자신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가시적 빛의 데이터만으로 재료의 물성을 단정 짓는 것에 대한 부정의 시작인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겸손이자 인식에 대한 신중함을 의미한다. 해석은 곧 선입견의 부정에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사물의 본성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무한히 순환하는 이 질문의 고리는 결국 나만의 화두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 일까? 빛은 흩어지고 이미지는 찬란하다.

It was when I was studying building materials in Nancy, France. The old and shabby glass workshop near Metz, where I visited, was filled with hot thermal energy coming from chunks of silica. The craftsmen of the studio, catching their long breaths and gushing out their sweaty sweat, were filling the air with the shape people ordered. Paradoxically, in the workshop where I came to study the properties of glass, I was lured by the exotic beauty arising from an unfamiliar exterior that filled the factory wall. Like most factories, this glassmith studio also seemed to have finished its walls with materials that could just shut out the outside air at a reasonable price.

Was it coming from the unfamiliar excitement from a stranger? Or was it because of the mood aroused by the brutal winter and the fervor of liquefied glass? The plastic exterior, which seemed to be attached obliviously, was filled with mysterious lights coming from the inside of the glass workshop wrapping the building with the combination of various colors. The light was oxidized on the surface of the exterior material, colorized and then flushed again through its own terminology. Besides, if the plastic cover shies away by the power of the sunlight and could not reveal its nature, it fills the inner side of the surface absorbs the sunlight with its own body and torches/scatters it out to the atmosphere.

The first thing I noticed at that time was the fact light also possess quantity and quality. In the grand metropolitan Seoul, where I encountered every day before studying abroad, I faced the same standard light with the same quantity and quality. Also, I may even have ignored the countless amplitude and resonance of light; a prejudice that all light in the world would be so. Is that why? When I talked about the light, the expressions I could only think of are the nondescript vocabularies such as ‘bright’ and ‘dark’; but the light I felt on that day was a different enough to recall other expressions such as ‘benevolent’ or ‘mellifluous.’ It’s as if it was touching to remind us of the sensual and sophisticated sympathetic light of the Vuoksenniska Church designed by Alvar Aalto.

The reason why Alvar Aalto is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s is that of the intense implementation of intrinsic and originals of various lighting that could not be felt in the cold form of modernism. Besides, the beauty of the light may have to be reinterpreted within the theme of ‘space of light,’ which has been continuously pursued by humankind.

In particular, stained glass in Gothic architecture is the first attempt in history to interpre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ight concerning religion and to produce it in line with the evolution of structural technology. Stained glass represents the history and emotions of the time beyond transcending the inner and outer spaces of space. For example, the blue color of the stained-glass used by Chagall in the Reims Cathedral symbolizes the timeless aesthetics and sophistication beyond the time of Gothic architecture. Likewise, the workshop’s own unique light has a unique aura of that place, as if it contained the azure sky of Alsace-Lorraine.

Every matter in this universe has its own unique nature. Glass can never be a brick, and brick can never be a stone. As the 20th-century architect sLouis Kahn said, “The crocodile must want to be a crocodile for reasons of the crocodile, and the nature of space reflects what it wants to be.” It may be interpreted that every intention of the creator has its own purpose and meaning or that every matter is a scientific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laws of nature. But what really matters is whether how we look at the object and how we interpret it regardless of the essence itself. This is how humans observe and understand the world, and we may call this the premise of philosophy. If one thinks that the customarily closed plastic chunks are as beautiful as the color of stained-glass that has been elaborately made for hundreds of years with, then it may be possible to find reasons as a subjective methodology of an object rather than as a denial of the objective truth of nature.

Since my time in France, I stopped judging objects by observing the visible phenomenon and gain confidence that the essence comes from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core immanence of the subject. It is perhaps a process of emptying, not filling, and an answer at the same time a question about the ego. If, as Nietzsche puts it, “truth does not exist and there is only interpretation,” the real of images only matters of how we look at things.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denial of determin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a material that is only been reflected by light. It is a modesty about things and a deliberate recognition. Interpretation begins with the negation of preconceptions and, paradoxically, by genuinely looking at the nature of things.

Is the chain of this infinitely circulating question ultimately a topic of my own, or is it just the way of our world? The light scatters, and the image is stunning.